

##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 개입 프로그램 효과: 집단 구성방식 비교를 중심으로

김 미 애<sup>†</sup>

대구대학교 대학원 상담학과

본 연구 목적은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이론적 통합모델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집단 구성방식이 다른 세 집단에게 실시한 후, 효과를 비교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행위자 2명과 그 배우자 10명을 <행위자 집단> 10명,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 11명, <부부 집단> 14명을 구성해 16주, 16회기, 48시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프로그램 효과 비교에 짝진 t-test, 집단 간 비교에 변량 분석 및 공변량 분석을 실시했다. 결과는 첫째, 프로그램 실시 후, 갈등관리행동, 자존감, 공격성, 우울, 산만한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가부장적 성역할이 참여자 전원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고 둘째, <부부 집단>이 자존감, 우울감, 의사소통, 갈등관리행동이 두 집단보다 효과가 높았고, 공격성, 가족 체계, 성역할은 <행위자 집단>보다 효과는 높았지만 <혼합 집단>과는 차이 없었다. 셋째, <부부 집단> 행위자들은 우울감, 의사소통, 갈등관리행동에서 두 집단 행위자들보다 효과가 높았고, 자존감은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성역할은 <행위자 집단>보다 효과가 높았다. 갈등관리행동은 <부부 집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가정폭력,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행위자, 집단 구성방식, 통합모델

---

<sup>†</sup> 교신저자 : 김미애, 대구대학교 산업복지학과 겸임교수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19번지  
E-mail : kmy38@chollian.net

그간의 국내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연구는 주로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김혜선, 1995; 김광일, 1987; 공미혜, 1997; 손정영, 1998; 박미은, 1998; 신성자, 1999; 신영화, 1999; 김경희, 1996; 김예정, 2001) 이들 연구는 피해자만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폭력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그쳐 대부분의 가해자인 남성 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력이 간과되었다(이서원, 2003; 박민수, 2005).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조치가 확보된 시점부터 가정폭력 행위자들에 대한 직접적 치료 개입이 가능해지면서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연구(안영희, 1998; 김경신, 김정란 2002)와 행위자 프로그램들에 대한 연구(쌍주여성 의전화, 1999; 신라대학교 여성문제 연구소 1999; 부산여성의 전화, 1999;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1999; 여성부, 2003) 및 프로그램 개발(권진숙, 1996; 최규련, 유은희, 송숙자, 정혜정, 1999; 권진숙, 전석균, 2001; 최선령, 2001; 이서원, 2003; 이경순, 2004; 박민수, 2005)이 활발해지면서 행위자의 폭력 행동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진행 과정을 보면 대부분 행위자들만을 프로그램 실시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개입 프로그램의 이론적 모델도 주로 단일 모델 또는 한두 가지 이론을 절충하여 구성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 관계에 있는 많은 여성들은 행위자의 폭력 행동이 근절된 후, 스스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결혼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허남순, 1995; 권진숙, 1996; 이경순, 2004; Edelson & Tolman, 1992)는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었고, 가정폭력 발생이 단선적 요인이 아닌 다요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Gitterman, 1996)한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론적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정폭력의 원인을 규정하는 방식으로서 개입방법과 목표 지향성을 결정(Edelson & Tolman, 1994)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는 Rounsaville (1978)이 말한 것처럼 가정폭력 발생 현상은 어느 한 이론으로는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다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다요인적인 원인론을 반영한 다차원적인 이론적 틀로 개입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연구 김예정(2001), 김지영(2003)의 아내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들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그 견해를 달리하는 데 본 연구 프로그램은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대상이므로, 가정폭력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신체적 폭력'으로 가정폭력을 한정하여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힘을 가하여 신체적 상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가정폭력을 규정(김재엽, 1996)하고자 한다. 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Straus(1979)가 분류한 부부사이의 갈등관리 행동 과정에서 보여 지는 3가지 형태의 행동 즉 이성행동, 언어공격 행동, 신체 폭력 중 신체폭력에 해당되는 상대방을 겨냥해서 물건을 던지는 행동, 잡거나 밀치는 행동, 뺨을 때리는 행동, 차거나 물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 물건으로 때리는 행동, 사정없이 마구 패는 행동, 칼이나 총으로 위협하는 행동, 칼이나 총을 직접 사용하는 행동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사용했을 때를 폭력 행동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또한 검찰청에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폭력 행위자인 남성을 아내를 구타한 프로그램 개입 대상자로 보고 이들에

개 ‘행위자’란 용어를 사용한다.

Steinmetz(1980)가 분류한 가정폭력을 보는 시각은 크게 개인내적 이론 (intra-individual theory), 사회 심리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 사회 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지고 이 이론들은 각 몇 개의 세부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개인내적 이론(intra-individual theory)은 가정폭력에 대한 가장 전통적 접근으로서 초기 발달상의 결함으로부터 초래된 심인적 문제를 폭력 행동의 원인으로 본다. 개인내적 이론 요소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아내를 학대하는 행위자들의 심리 기저에는 피해자와 공통적으로 ‘우울’, ‘낮은 자아존중감’, 손상된 자아 기능’,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요소들은 배우자 폭행에 허용적이 된다(Tolman & Bennett 1990; MacDonald, Holmes, & Murra, 1997). 이러한 관점은 이들에 대한 통찰 치료로 연결된다.

사회 심리적 이론(social-psychological theory)은 조직과 개인과의 상호작용, 사회 환경, 집단, 타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개인이 집단 및 조직에 반영되는 타인과 자신의 태도 등에서 가정폭력의 원인을 모색하려는 입장이다 (McKenry, Julian & Gavazzi, 1995; 김경신, 김정란, 2002). 대표적 이론인 사회 학습 및 역할 모형 이론 (social-learning and role-modeling theory)은 폭력은 학습된 행동의 결과라고 보면서 아내 폭력을 행하는 남편들은 원가족속에서의 폭행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Stith 등(Stith, Rosen, Middleton, Busnh, Lundeberg, & Carlton, 2000)이 행한 메타 분석 결과 원가족 폭력의 결과는 폭력 가정에서 성장한 남성들은 여성보다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여성들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 학습 이론에 기반 된 인지 이론에 기초하여 폭력 행동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재학습(relearning)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Taylor, 1984).

한편, 사회 문화적 이론(socio-cultural theory)은 폭력을 가치, 제도 등과 같은 사회적, 거시적 수준에서 설명한다. 대표적 이론으로는 체계 이론(system theory)과 페미니스트 이론(feminist theory)이 있는데 체계 이론은(System Theory) 가족을 사회 체계로 보며 폭력을 부부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고 동등한 책임을 부과한다(Straus, 1979). 한편, ‘road rage’에 관해 연구한 Parkinson(2001)은 의사소통적 요인과 공격성과의 관계성에 관해 연구하면서 상대의 비악의적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공격성이 활성화되면서 타인에게 적대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국내 연구(이정은, 이영호, 2000)에서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부부관계의 질이 높은 남편은 아내에 대해 공격성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여권주의 이론의 지지자들은(Stordeur & Stille, 1989)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는 원인 연구에서 아내 학대는 ‘가해남성과 피해여성 사이의 불균형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통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 사는 중국,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Yoshioka, Dinola & Ullah, 2001)에서는 아내가 잔소리를 하거나 가사 일을 거부 또는 외도하는 경우 폭력 사용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들의 낮은 성역할 의식은 아내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어 아내 폭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다음은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검증된 변인들 중 부부간 발생하는 갈등관리 행동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변수들에 관한 선행 연구 고찰이다. 연구자들(김광일, 1993;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Bellavial & Murray, 2003)은 행위자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감정 폭발이 잘되고 아내폭력을 자주 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 교제에서 상대 거절에 민감하고 상대의 부정적 반응에 쉽게 적대적이 되어 공격성을 갖는다. 한편, 공격성은 인간의 폭력이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인이다(Bartol, 2002). 따라서 공격성은 폭행 남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여타 변인들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아내 폭행을 야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장기 때 가정폭력 경험과 부모 폭력 목격 경험이 있는 행위자들은 우울감과 고독, 무력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호소한다(Haj-Yahia, 2001). 우울한 행위자들은 수줍음이 많고 단호하지 못하며, 자기주장을 어려워 하고(Saunders, 1989) 때로 이들의 우울의 수준은 자살 욕구에 이르며 우울은 신체 폭력을 많이 하는 직접적 변인이라 밝혔는데(Barnett & Rivers, 1997) 대체로 우울이 증가할 때 이들은 자기표현의 역부족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부딪히며 마침내 부부간 폭력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개인 역사적 측면에서 원가족에서의 폭력 경험이 아내 폭행을 야기하는 것과도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Hotaling & Sugarman, 1986; 노치영, 박성연, 1992; 손정영, 1998; 김예정, 2001; 김지영, 2003). 이는 부모의 폭력 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고 폭력 경험이 배우자 폭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

실을 입증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에서의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의 질을 변화시키고, 아내 폭행 예측 변수로 작용하며(김정옥, 전형미, 이현례, 1992) 김득성 등(2000)의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일수록 신체 폭력을 한다고 했다.

가정폭력과 가족 체계 기능과의 관계에서도 가족의 건강과 역기능이란 바로 가족 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관계의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 체계가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고 의사소통 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태였다고 보고했다(Olson & Defrain, 2003). 최규련 등(1999)은 가정폭력과 성역할의 관계 연구에서는 가부장적인 성역할 태도가 아내 구타를 보다 쉽게 유발할 수 있다고 했으며 남편은 보수적이고 여성의 성역할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아내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했다(이서원, 2003; Osmond & Martin, 1975)고 보고했다.

이상과 같이 가정폭력의 원인론에 대한 각각의 시각은 치료 초점과 내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에 있어 단일 접근은 치료의 초점이 지엽적이고 일차원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가정폭력은 폭력의 원인에서 전술한 개인내적 요인, 사회 심리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모두 포괄한 이론적 통합 모델의 치료프로그램이 단일 접근보다 더 효과적이라(김예정, 2001) 사료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선행 연구를 통한 국내의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임상적 개입 흐름을 살펴보면 먼저,

Eddy & Myers(1984)의 전국 조사에서 1980년대 미국의 75%이상의 행위자 프로그램이 여성주의와 인지 행동 모델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성주의 이론의 대표적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에는 EMERGE Model, Duluth Model, AMEND Model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가해 남성의 남성 우월적 비신념에서 나온 폭력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행위자에게 묻고 폭력 대안적 기술 습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Gelles, 1989).

한편, 인지 행동 이론은 현재까지 미국의 가해자 프로그램들에서 대부분 분노 통제에 기반을 둔 인지 행동적 모델을 주류를 삼고 있는데(이은주, 2000. 재인용) 인간의 의식적인 인지 과정을 변화시킴으로써 아내 구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Saunders, 1998). 종래까지 위의 두 가지 이론이 주로 가정폭력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동안, 체계 이론에 근거한 행위자 프로그램도 적용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이 연구들은 배우자를 학대한 남성의 가족 상담을 목적으로 시작되었고, 폭력의 책임을 가족들 상호 기여분에 대한 역할을 염두에 두면서 가해자의 폭력 개선의 가족 치료 모델을 생성했다(Coleman, 1980; Geller, 1982; Cook & Frantz-Cook, 1984). 인지행동과 집단과정에서의 심리 역동 집단(process-psychoanalytic group) 프로그램은 Saunders(1996)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는 행위자들의 폭력 행동의 발생을 심리내적 상흔에서 재발견하는 통찰 치료를 거쳐 폭력 행동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 연구에서도(최선희, 2001; 권진숙, 전석균, 2001; 김경신, 김정란, 2002; 이정연, 2003; 이서원, 2003; 이경순, 2004; 박민수, 2005) 프로그램 개입에 있어서 이론적 단일 모델 혹은 서로 다른 한 두

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행위자들의 폭력 행동 근절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는 가정폭력 발생이 개인 심리, 사회, 문화적 차원에 의한 다요인적 원인에 있는 만큼 다차원적인 통합 이론 모델로서 설명되어야 한다는(Gitterman, 1996) 관점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충분한 치료 개입보다는 한 두 요인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의 연구들을 볼 때, 최근 미국에서는 정신분석적 접근이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피해자의 정신병리보다는 가정폭력의 성장기 상처 치유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과 비구조적인 집단 운영과 치료적 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점차 정신 역동 모델과 체계 모델도 다른 이론과 상호보완적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통합 모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는 가정폭력의 다요인적 원인을 반영한 통합 모델로 구성된 Mathews(허남순, 윤현숙, 조성숙, 구성모 역, 2000)의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프로그램'을 토대로 하였다. 이론의 통합모델 적용은 정신 역동 모델에서 행위자의 개인 특성에 기반한 원인 이해에 윤곽을 주고, 사회 학습 이론에 의한 분석은 폭력에 대한 구체적 개입에 필요한 틀을 제공해 주게 된다. 아울러 체계 이론은 가족 속의 역동을 분석하여 폭력 기여분에 대한 상호 책임을 통해 행위자의 폭력 개선과 가족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여성주의 이론을 통해서도 폭력에 대한 태도와 가치를 개선하고 가족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입하는 모델이라 볼 수 있다(Murphy & Baxter, 1997).

한편, 선행 연구에 있어서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도 대부분 행위자 일방만

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어 행위자의 폭력 행위 감소에 한계가 있어 왔다(Mullender, 1996).

지금까지, 행위자들의 가정폭력 문제의 개입방법을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대한 임상적 개입방법을 양식(modality)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우선 개인과 집단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행위자 경우 검찰 및 법원 명령에 의해 부과되므로 주로 집단상담 형식을 취하는데 그 집단 구성방식이 <행위자 집단>과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은주(2000)의 연구에서는 부부합동 집단 구성 방식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부부 공동의 책임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다. 더구나 부부합동 집단 구성방식이 피해자 안전에 위험함을 제기함(Bograd, 1984)으로써 사실상, 부부 합동 집단 구성방식이 어려움을 시사했다.

한편, 최근 여성주의자(Bograd & Mederos, 1999)는 부부합동 집단 구성방식 적용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을 제기하면서도 그 적합성 요건을 고려한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즉, 행위자의 폭력 행동의 심각성이 크거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폭력 행동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폭력 행동에 변화 동기가 있는 행위자들이라면 부부합동 집단상담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을 제공했다. 또 체계론 지지자들의 시각도 수용되기 시작했다(Weidman, 1986). 이 연구의 관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위자 부부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최규련, 1996; 김예정, 2001; 김지영, 2003; 이정연, 2003; 이경순, 2004).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국내외에서도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으로서 이론적 통합 모델의 적용(김경신, 김정란, 2002)과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에 있어서 부부가 함께 참여한 연구(Neidig & Friedman & Collins, 1985; Deschner & McNeil, 1986; 권진숙, 1996; 이정연, 2003; 이경순, 2005)가 진행된 바 있다

Neidig과 Friedman(1984)은 10쌍의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인지 행동 이론과 체계 이론을 통합한 이론적 모델 프로그램에 구조화된 10회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행위자의 폭력 행동인 갈등 관리 행동 감소는 물론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기술 또한 증진되어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보고하고 있다. Deschner(1984) 또한 15쌍의 가정폭력 부부를 대상으로 10회기동안 인지행동주의 프로그램에 기반한 집단상담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모두 폭력 행동 감소와 긍정적 인지 전환에 효과 있음을 결과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국내 권진숙(1996)의 연구는 일반 가정의 폭력성이 있는 부부와 피해자 11명을 대상으로 사회 학습 이론과 체계 이론에 근거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한 효과 검증에서는 우울과 자존감, 공격성, 갈등 관리 행동, 부부관계 개선의 변인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효과 있음을 결론에서 밝혔다. 한편, 이경순(2005)의 연구는 Satir 성장 모델 단일 이론을 토대로 감정에 대한 자각과 일치적인 의사소통 기술 증진 그리고 자기존중 향상을 위해 주관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성장을 지향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집단 구성방식에서 가정폭력 행위자와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을 대상으로 15명이 1주에 2시간씩 11회기에

걸쳐 22시간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들 중, 분석 대상은 부부 6쌍인 12명이다. 프로그 램 적용의 효과는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 는데 이들 구성원들이 집단상담 후 작성한 경 험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특히 경 험보고서에서 분석된 반응에서 주요 결과들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부부관계의 중요한 관점은 일치적 의사소통, 자기 존중, 감정 자각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다. 한편, 이정연(2003)의 연구는 가정폭력 집단 구성방식이 행위자 5명과 부부 5쌍인 모 두 15명이 함께 참여하여 1주에 2시간씩 10회 20시간을 교육하였다. 가족체계적 관점과 인 지행동의 이론 모델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을 실 시 받았다. 이들에겐 사전, 사후 검사를 통 해 양적 효과 검증을 하였다. 프로그램 효과 결과는 의사소통 기술 습득과 긍정적 인지적 전환을 도모하고 부부폭력 상호 책임을 인정 하여 행위자의 폭력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 있 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집단> 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단일 집단 사전, 사 후 검사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고, 적은 표본 수, 단기간의 교육, 단일 이론 또는 한두 가지 절충식의 이론 접근, 객관적 효과 검증이 어 렷은 사례 연구 등으로 인하여 개입 효과에 대한 일반화에 제한을 갖는다. 이와 같은 측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법정명령 프로그램 시행의 초기단계인 현 시 점에서 이들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적 모델로 서 어떠한 집단구성 방식으로서 참여 유형을 가지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얻느냐에 대한 논 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 행동 감소를 위해 가정폭력의 다요인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기존 프로그램 분 석을 참고로 다차원적 이론의 통합 모델인 가 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위자 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이 서로 다른 세 집단 즉, <행위자 집단>, <행위자 및 부 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 <부부 집단>으로 구성된 세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프로그 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를 비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 에서 살펴볼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프로그램 실시 후, 참석자의 자존 감, 공격성, 우울, 산만한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가부장적 성역할, 갈등 관리 행동이 프 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향상될 것이다.

**가설 2.** 프로그램 실시 후,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에 비하여 자존감, 공격성, 우울, 산만한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가부장적 성역할, 갈등 관리 행동이 프로그램 실시 전 에 비하여 가장 많이 향상될 것이다.

**가설 3.** 프로그램 실시 후, <부부 집단>의 행위자가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 가 함께 참여한 집단>의 행위자보다 자존감, 공격성, 우울, 산만한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 능, 가부장적 성역할, 갈등 관리 행동이 프로그 램 실시 전에 비하여 더 많이 향상될 것이다.

## 방 법

###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구 검찰청으로부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고 상담수탁기관인 대구광역시 소재 J연대통합 상담소에 위탁된 당사자인 행위자들과 그 배우자들로 국한하였다. 형사 사법적 처벌에 대한 특별법 적용의

가정폭력 특별법 특성상, 행위자들이 본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이행하였을 때는 가정폭력에 대한 재판회부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일정 기간 내 프로그램 참여를 불이행하였을 때는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법원의 재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남	여	전체
		N(%)	N(%)	
학력	초등졸	2(5.71)	2(5.71)	4(11.43)
	중졸	9(25.71)	5(14.29)	14(40.00)
	고졸	6(17.14)	5(14.29)	11(31.43)
	대졸	5(14.29)	1(2.86)	6(17.14)
	전체	22(62.86)	13(37.14)	35(100.00)
연령	30대	8(22.86)	5(14.29)	13(37.14)
	40대	7(20.00)	5(14.29)	12(34.29)
	50대 이상	7(20.00)	3(8.57)	10(28.57)
	전체	22(62.86)	13(37.14)	35(100.00)
결혼 상태	초혼	16(45.71)	8(22.86)	24(68.57)
	재혼	6(17.14)	4(11.43)	10(28.57)
	삼혼	-	1(2.86)	1(2.86)
	전체	22(62.86)	13(37.14)	35(100.00)
폭행 원인	권위주의 사고	4(11.43)	2(5.71)	6(17.14)
	성격 문제	9(25.71)	4(11.43)	13(37.14)
	의사소통 방식	2(5.71)	-	2(5.71)
	가족관계	1(2.86)	1(2.86)	2(5.71)
	경제 문제	1(2.86)	-	1(2.86)
	외도 문제	2(5.71)	3(8.57)	5(14.29)
	배우자 본가와 갈등	3(8.57)	3(8.57)	6(17.14)
	전체	22(62.86)	13(37.14)	35(100.00)
혼인 유지 여부	혼인 지속	21(60.00)	1(2.86)	22(62.86)
	폭력 중단 혼인 지속	1(2.86)	12(34.29)	13(37.14)
	전체	22(62.86)	13(37.14)	35(100.00)

판회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회부의 기소 대상자인 행위자들은 비자발적이긴 하지만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대부분 이행해왔다. 그러나 재판회부의 기소 대상자가 아닌 행위자의 배우자들이 자발적으로 행위자의 폭력 행동 감소를 서로 돕기 위해 집단상담에 참여해 온 예는 매우 드물다. 이들 행위자의 폭력 수준의 정도는 뺨을 때리고 목 조르는 행동에서부터 발로 차고, 몽둥이로 구타하고 심지어는 칼이나 무기로 폭력적 위협을 가한 정도와 함께 대개 어린 시절 아동기 폭력 경험과 부모 폭력 목격 경험을 한 성장기 배경을 가졌다. 또한 행위자 중 일부는 일반인들에 대한 폭력전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인 연구 대상자의 학력, 연령, 결혼 상태, 폭행 원인, 혼인 유지 여부에 관한 분포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세 개의 실험 집단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총 35명으로 가정폭력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행위자와 그 아내들이다. 대상자 총 35명중 남자는 22명(62.86%), 여자는 13명(37.14%)이었다. 결혼 상태별로 보면 초혼인 경우가 전체의 24명(68.27%)으로 나타났다. 재혼인 경우도 10명(28.56%)이나 되었다. 폭행 원인별로는 성격문제가 13명(37.1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권위주의적인 사고가 6명(17.14%)이었고, 배우자 본가와 갈등이 6명(17.14%)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인 유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참석자가 혼인 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이 22명(62.86%)이었던 반면에, 폭력이 중단되면 혼인 유지를 하겠다고 응답한 것이 13명(37.14%)이나 되었다. 참석자의 연령은 30대에서 50대 이상의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 평가 도구

### 우울 척도

이 척도는 Beck(1967)이 개발한 척도로 Likert가 개발한 총화평정법(summated rating)에 의한 척도 구성법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피검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한 주 동안 불안을 경험했던 정도를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한다. 한국에서는 한홍무 등(1986)이 표준화를 위해 연구한 한국판 BDI(Beck Depression Inventory)의 신뢰도는 정상 집단에서는 .886 우울증 집단에서는 .942로 높게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정숙, 양옥경(1997)의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값이 .887이다.

### 자존감 척도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했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리커트형 4점 척도이지만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처리한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신뢰도는 .81(Cronbach  $\alpha$ =.81)였다.

### 공격성 척도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1992)의 The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이성우(2000)가 번안한 것으로 총 29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 적대감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신체적 공격에 대한 9문항만 적용한다. 신체적 공격 문항만 사용하는 근거는 가정폭력 행위자가

공격적인 신체적 폭력 행동으로 인해 상담조 건부 기소 유예자가 되어 처벌을 받는 것과 관련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각 문항은 리커 트형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 신뢰도는 .93(Cronbach  $\alpha$ =.93)이다.

#### 갈등 관리 행동(Conflict Tactic Scale) 변인 측정 도구

배우자 학대 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Conflict Tactics Scale(CTS) II를 변안한 것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1996)을 김예 정(2001)이 문항 내용이 중복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 문항을 수정·보완한 총 2문항을 사용하였다. 척도문항은 심리적 폭력, 약한 신체적 폭력, 심한 신체적 폭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 범주는 8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 폭력이 많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Cronbach  $\alpha$ 값을 구한 결과, 심리적 폭력은 .87, 약한 신체적 폭력은 .90, 심한 신체적 폭력은 .93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의사소통

Satir(1972)의 의사소통 유형 척도는 김득성 등(2000)이 사용한 즉,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대화하는 방식 중 가정폭력을 야기하는 것과 관련이 깊은 산만형 의사소통 6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산만형 의사소통을 많이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은 .75이다.

#### 가족 체계 기능

가족 체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Olson,

Portner, Lavee(1985)에 의해 제작된 가족 응집력·적응력 평가 척도(FACE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와 부부의 의사소통을 알아보는 척도로 구성된 것이 있다. 가족 응집력과 가족 적응력의 문항 수는 각각 10개로 총 20문항이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항상 그렇다' 5점의 Likert 방식으로 총 점수의 범위는 10-5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력이 높다. 척도의 홀수 번호는 응집력 차원을, 짝수 번호는 적응력 차원을 측정한다. Cronbach  $\alpha$ 값은 결과 응집력이 .77, 적응력이 .62였다. 여기서는 가정폭력과 가족 체계 기능과의 관계에서도 가족의 건강과 역기능이란 바로 가족구성원 사이에 일어나는 역동적인 관계의 과정에 관련된 것으로 가족의 응집력이 높을수록 가족체계가 기능적으로 잘 유지되고 의사소통 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태였다고 보고한 연구(Olson & Defrair, 2003)에 의한 가족 응집력 10문항을 사용하였다.

####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공미혜(1997), 공미혜·박기자(1998), 윤경자·최규련(1999)의 의사결정, 가사일, 아내의 가정 내와 가정 밖 활동에 대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할 수 있는가와 폭력 및 이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된 8문항을 사용하였다. 응답 범주는 4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가 높으며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Cronbach  $\alpha$ 값을 구한 결과 .75로 나타났다.

#### 요인별 신뢰도 및 요인간 상관행렬

표 2는 요인별 신뢰도이다. 모든 요인의 내적 신뢰도는 성역할 요인(.72)을 제외하고 모

표 2. 요인별 신뢰도 및 평균과 표준편차

요 인	문항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자존감	10	2.35	0.83	.94
공격성	9	3.08	1.22	.96
우 울	21	2.64	0.99	.98
산만한 의사소통	5	3.08	1.31	.94
가족체계기능	10	2.73	1.33	.97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7	1.75	0.34	.72
갈등관리행동	21	2.76	0.99	.97

표 3. 요인간 상관행렬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체계	성역할	갈등관리
자존감	1.000						
공격성	-.906*	1.000					
우울	-.932*	.912*	1.000				
산만한 의사소통	-.874*	.920*	.924*	1.000			
가족체계기능	.893*	-.880*	-.919*	-.897*	1.000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372*	.434*	.417*	.430*	-.440*	1.000	
갈등관리행동	-.875*	.911*	.910*	.912*	-.891*	.384*	1.000

주. \* $p < .001$

두 .94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 요인의 평균은 1.75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고, 자존감 요인의 평균은 2.35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나머지 요인들은 모두 평균 2.64점에서 3.08점으로 중간 점수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표 3에는 7개 요인간 상관행렬표가 나타나 있다. 요인간 상관은 .37에서 .93사이이며 성역할 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간 상관은 .8계에서 .93로 나타났으며, 모든 요인간 상관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p < .0001$ ). 자존감은 가족 체계 기능 요인과 정적 상관(.893)을 이루

며 나머지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이루고, 가족 체계 기능은 자존감과는 정적 상관을 이루지만 나머지 요인들과는 부적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 행위자의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구성한 것이다. 구성된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행위자의 폭력 행동을 근절하고 둘째, 비폭력적인 대안 행동을 학습하고 훈련한다. 셋째, 행위자의 심리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넷째, 행위자 부부관계를 향상시킨다. 프로그램 구성의 초점은 목

표와 같이 행위자들의 폭력 행위 특히, 부부 간 발생하는 갈등 관리 행동을 감소하고 부부 관계 향상을 하는 데에 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 효과 극대화의 결정적인 변수가 부부가 함께 참여함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자의 상담 현장에서의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집단 간 프로그램 효과를 비교하고자 집단 구성방식이 다른 세 집단을 구성하였다.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은 달라도 결국 행위자의 목표는 폭력 근절과 부부관계 향상을 가져오는 데 있으므로 3집단에게 동일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즉, 같은 목표를 두고 <행위자 집단>은

행위자들과의 상호 역할 연기와 과제를 통한 집단 운영 방식을 진행하고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에서는 부부가 함께 참여한 팀은 행위자만 참여한 팀에게 모델이 되어주고 행위자들에게는 역시 역할 연기와 과제를 통한 보고와 나누기를 통해 목표에 접근해 갔다. <부부 집단>에서는 집단 구성원 모두가 부부 팀이었으므로 실질적인 대화 나누기, 역할 연기, 과제를 통한 경험 나누기 등을 통해 목표 달성에 접근해 갔다. 이러한 상담 과정은 집단 구성원들의 집단 구성방식에 따라 과제의 형태, 부부관계 기술의 훈련 형태 등에서 부분적 융통성 있게 수정을 가했다.

표 4. 프로그램의 내용

회기	주 제	목 표	프로그램 내용
1	오리엔테이션	집단참여, 규칙, 내용 이해	구성원, 집단성격소개, 사전검사
2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폭력종류, 주기, 법적규제 이해	점검, 가정폭력주기, 문제 해결
3	사회문화적 허용	폭력과 가부장적 태도 직면	가정폭력 통념 점검
4	자기관찰과 통제계획	상황분석 방법 훈련	경고신호 알아차리기, 과제물
5	일시중단 계획/폭력의 영향	일시중단 방법, 필요성 숙지	일시중단 계획발표, 필요성 숙지
6	원가족경험과 현재 배우자간 관계경험 나누기	3대 가계도를 통한 가족역동 이해. 부부의 특성 이해	가계도 작업, 부부관계 나누기 (과제 통한 경험나누기)
7	배우자와 나의 다른 점 찾기	배우자 성격 및 심리특성 이해	역할연기를 통한 부부 이해
8	갈등관리행동 중간평가	폭력행동 조절	역할연기, 중간평가
9	갈등대처	갈등해결 훈련, 갈등 이해	상담사례로 본 부부갈등, 나누기
10	성공적 분노조절경험 나누기	A-B-C모델 이해	긍정적사고 전환. ABC모델 소개
11	감정다루기 및 안아주기	부부감정 이해 및 수용	감정주고 받기 실습. 나누기 (과제 통한 경험나누기)
12	의사소통 훈련 1	대화의 중요성, 듣기 기술	감정읽기, 듣기 역할연습 과제
13	의사소통 훈련 2	의사소통 4가지 형태 이해	말하기게임, 나-전달법연습(과제)
14	갈등해결 기술	갈등관리의 필요성 숙지	나의 갈등대처 유형, 갈등 해결
15	부부성장 촉진 기술	부부화합 계획 및 칭찬하기	상대 장점 찾기, 인정, 칭찬기법
16	수료식	프로그램 전반 평가, 격려	개별목표달성 확인, 사후검사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표 4와 같다.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다요인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고, 기존의 다차원적인 통합모델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본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행위자들의 서로 다른 집단 구성방식에 따른 프로그램 실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대구 J연대통합 상담소에서 2005년 2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차에 걸친 가정폭력 행위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자는 프로그램 실시 이전에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 구성을 위한 사전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때는 특히, 피해자의 안전과 폭력 행동 변화에 대한 높은 동기가 준비된 행위자들을 중심으로 <행위자 집단>은 물론, <부부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사전 개인 면담을 거쳤다. 집단 구성방식이 서로 다른 집단 구분에 대한 설명은 표 5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다. 실험집단 1은 집단 구성원 10명이 모두 행위자로 구성되어 <행위자 집단>으로 명명하고, 실험집단 2는 집단 구성원 8명 중 5명은 행위자만 참여하였고 나머지 3명은 그 배우자 3명과 함께 참여

하여 구성원 11명이 행위자들과 부부로 함께 구성되어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실험집단 3은 마침내 집단 구성원이 행위자 7명과 그 배우자 7명인 모두 14명인 부부만이 참여한 집단으로 구성되어 <부부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집단 구분은 우선 검찰청으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 상담 수탁된 일정 수의 행위자들이 확보된 상황에서 본 연구자가 집단 구성방식에 따른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행위자들과 그 배우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목표와 취지를 설명하고 권유하여 세 집단을 구성하게 되었다. 이들 3개의 집단은 통제 집단을 두지 않고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험 집단으로만 구성되어 동일 프로그램을 실시 받았다. 행위자 25명 중 남성이 22명이고 여성이 3명이었다. 배우자 10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통제 집단 없이 3개의 실험 집단만으로 구성된 이유는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되는 행위자 수가 한정적이고 의뢰된 일정 시간 내에 교육 수료를 해야 하는 관계로 통제 집단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특수성 때문이었다. 프로그램 지도는 본 연구자(상담학 박사 수료, 상담심리전문가, 집단상담 전문가)가 주 진행을 맡고, 집단상담 전문가(사회복지학

표 5. 실험 집단 구성

구분	행위자 집단 개입 양식명	행위자 및 부부 참여 성별(사례수)	프로그램 실시 기간
실험 집단1	행위자 집단	행위자: (7명)+여(3명) 총 10명	2005. 2.17-6.20
실험 집단2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	행위자: 남자(5명) 부부3쌍(6명) 총 11명	2005. 4.20-8.20
실험 집단3	부부 집단	행위자: 남(7명) 여(7명) 총 14명	2005. 8.30-12.28.

박사, 교수, 남성이 협동촉진자로 함께 진행을 하였다. 두 사람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 전체 총 5회에 걸친 10시간 동안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통합모델 프로그램에 대한 시연 및 평가시간을 가졌다.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9.1 프로그램을 통한 통계 처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백분율 등을 알아보았고,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짝진 t-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별 사전 검사 점수의 차이를 보기 위해 일원 변량 분석을 실시하고 사전 검사를 배제한 효과를 보기 위해 일원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상담위탁보호처분대상자 전원의 집단상담 사전-사후 프로그램 효과 분석

표 6에서는 참석자의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체계기능, 성역할, 갈등관리 행동 점수에 대해 전체 세 집단에 대한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t-test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검증 결과 집단 전체는 모든 7요인들에 대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 이는 가설 1을 수용하는 결과이다.

집단별 효과 비교 검증

표 7에는 각 7개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고, 표 8에는 각 7개 요인에 대한 집단별 사전 검사의 변량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우울감에서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보다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 검사의 점수를 배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프로그램 실시 후,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갈등 관리 요인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가장 많이

표 6.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체계기능, 성역할, 갈등관리 요인에 대한 프로그램 효과 검증

변인	사전		사후	
	평균값(표준편차)	평균값 표준편차	t	p
자존감	1.62(0.32)	3.08(0.45)	-14.82*	<.0001
공격성	4.14(0.46)	2.02(0.71)	14.94*	<.0001
우울	3.56(0.25)	1.72(0.42)	21.66*	<.0001
산만한 의사소통	4.18(0.46)	1.97(0.85)	13.84*	<.0001
가족체계기능	1.59(0.55)	3.86(0.78)	-15.24*	<.0001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1.89(0.36)	1.62(0.24)	3.60*	<.0010
갈등관리행동	3.62(0.32)	1.91(0.62)	13.60*	<.0001

표 7.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체계기능, 성역할, 갈등관리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행위자집단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	부부집단	전체
자존감	사전	1.76(0.33)	1.58(0.28)	1.55(0.33)	1.62(0.32)
	사후	2.87(0.40)	2.85(0.53)	3.41(0.15)	3.08(0.45)
공격성	사전	4.04(0.39)	4.14(0.45)	4.20(0.53)	4.14(0.46)
	사후	2.41(0.70)	2.20(0.82)	1.59(0.34)	2.02(0.71)
우울	사전	3.41(0.42)	3.56(0.07)	3.66(0.09)	3.56(0.25)
	사후	1.97(0.37)	1.85(0.52)	1.44(0.19)	1.72(0.43)
산만한 의사소통	사전	3.96(0.41)	4.40(0.30)	4.17(0.56)	4.18(0.47)
	사후	2.44(0.52)	2.31(1.13)	1.37(0.30)	1.97(0.86)
가족체계기능	사전	1.41(0.38)	1.65(0.21)	1.68(0.80)	1.59(0.56)
	사후	3.38(0.80)	3.69(0.94)	4.34(0.19)	3.86(0.79)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사전	2.13(0.42)	1.82(0.33)	1.77(0.29)	1.89(0.37)
	사후	1.81(0.33)	1.56(0.13)	1.53(0.15)	1.62(0.24)
갈등관리행동	사전	3.70(0.11)	3.43(0.25)	3.72(0.41)	3.62(0.32)
	사후	2.25(0.43)	2.21(0.77)	1.42(0.11)	1.91(0.62)

표 8.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체계기능, 성역할, 갈등관리 요인에 대한 집단별 사전검사의 변량 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scheffe <sup>1)2)</sup>
자존감	2	.28	.14	1.44	.2516	
공격성	2	.14	.07	.32	.7298	
우울감	2	.38	.19	3.51*	.0419	집단 1<3
산만한 의사소통	2	1.02	.51	2.52	.0961	
가족체계	2	.48	.24	.76	.4758	
성역할	2	.84	.42	3.59*	.0393	
갈등관리	2	.61	.30	3.29	.0500	

\*  $p < .05$

주. 1) 집단1: 행위자 집단, 집단2: 부부 및 행위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 집단3: 부부 집단

2) '>' 표시는 이웃하는 집단 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향상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표 9에는 각 요인에 대한 조정된 평균이 제시되어 있고, 표 10에는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각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는 공변량 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자존감과 우울감 ( $F(2,27) = 8.05, p < .01$ ), 의사소통( $F(2,27) = 8.15,$

표 9.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체계기능, 성역할, 갈등관리 요인에 대한 집단별 조정된 평균

	행위자집단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	부부집단
자존감	2.87	2.85	3.41
공격성	2.42	2.20	1.59
우울	2.02	1.85	1.40
산만한 의사소통	2.48	2.31	1.37
가족체계기능	3.40	3.68	4.33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1.85	1.55	1.51
갈등관리행동	2.25	2.22	1.41

표 10.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갈등 관리요인에 대해 사전검사 점수를 통제한 공변량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scheffe <sup>1)2)</sup>
자존감	2	2.41	1.20	8.23*	.0014	집단 1,2<3
공격성	2	4.63	2.31	5.69*	.0078	집단 3<1
우울감	2	2.13	1.06	8.05*	.0015	집단 3<1,2
산만한 의사소통	2	8.56	4.28	8.15*	.0014	집단 3<1,2
가족체계	2	5.39	2.69	5.55*	.0087	집단 1<3
성역할	2	.62	.31	7.05*	.0030	집단 3,2<1
갈등관리	2	5.21	2.60	10.42**	.0003	집단 3<1,2

주. 1) 집단1: 행위자 집단, 집단2: 부부 및 행위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 집단3: 부부 집단

2) '>' 표시는 이윳하는 집단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p < .01$ ), 갈등 관리 ( $F(2,27)=10.42$ ,  $p < .01$ )에서 <부부 집단>의 평균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가설 2를 일부 수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공격성( $F(2,27)=5.69$ ,  $p < .01$ )과 가족 체계 기능( $F(2,27)=5.55$ ,  $p < .01$ )의 요인에서는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가설 2를 일부 부분 수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갈

등 관리 행동 요인은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보다 더 많이 향상된 결과를 보여준다.

#### 집단별 행위자들간의 프로그램 효과 분석

표 11에는 각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가 제시되어 있고, 표 12에는 각 요인에 대한 집단별 사전 검사의 변량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의사소통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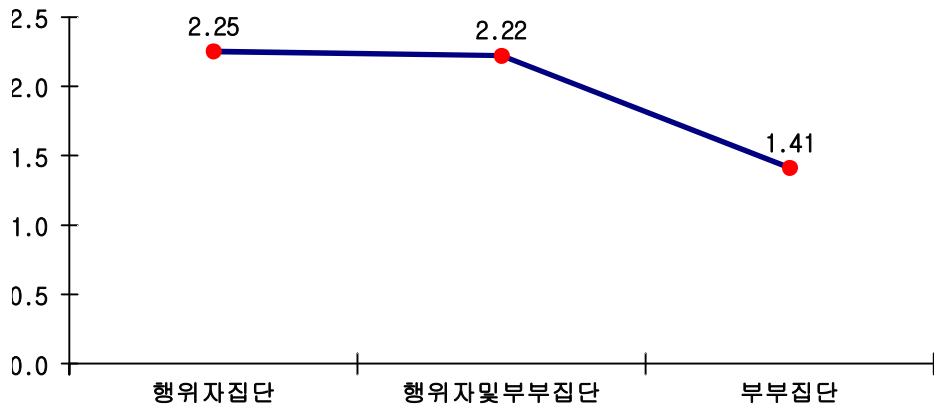


그림 1. 집단별 갈등 관리 행동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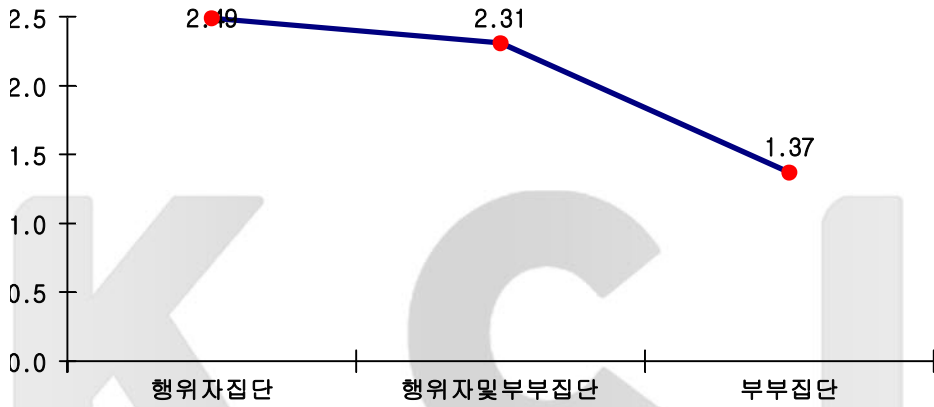


그림 2. 집단별 산만한 의사소통의 평균

<부부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이 <행위자 집단>보다 의사소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 관리에서도 <부부 집단>이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에 비해 갈등 관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전 검사의 점수를 배제한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후 전체 참여자 중, <부부 집단>의 행위자들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의 행위자

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공변량 분석의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각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조정된 평균이 표 1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자존감( $F(2,27)=4.18, p<.05$ ), 우울감( $F(2,27)=4.88, p<.05$ ), 의사소통( $F(2,27)=6.90, p<.01$ ), 갈등관리( $F(2,27)=5.20, p<.05$ )의 요인에서 <부부 집단>의 행위자들이 다른 두 집단의 행위자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역할

표 11.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갈등 관리 요인에서 집단별 행위자들에게 대한 사전검사 평균과 표준편차

		행위자집단 (10명)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5명)	부부집단 (7명)	전체
자존감	사전	1.76(0.33)	1.65(0.30)	1.66(0.42)	1.70(0.34)
	사후	2.87(0.40)	2.79(0.56)	3.37(0.14)	2.98(0.47)
공격성	사전	4.04(0.39)	4.32(0.22)	4.35(0.38)	4.22(0.36)
	사후	2.41(0.70)	2.39(0.87)	1.60(0.29)	2.18(0.75)
우울	사전	3.41(0.42)	3.54(0.08)	3.63(0.10)	3.51(0.28)
	사후	1.97(0.37)	1.99(0.54)	1.47(0.24)	1.84(0.45)
산만한 의사소통	사전	3.96(0.41)	4.50(0.24)	4.49(0.11)	4.28(0.39)
	사후	2.44(0.52)	2.65(1.16)	1.29(0.28)	2.18(0.92)
가족체계기능	사전	1.41(0.38)	1.65(0.24)	1.46(0.15)	1.50(0.29)
	사후	3.38(0.80)	3.43(0.98)	4.31(0.25)	3.66(0.85)
가부장적성역할태도	사전	2.13(0.42)	1.82(0.36)	1.90(0.33)	1.97(0.39)
	사후	1.81(0.33)	1.57(0.15)	1.51(0.11)	1.65(0.26)
갈등관리행동	사전	3.70(0.11)	3.43(0.29)	3.91(0.35)	3.67(0.31)
	사후	2.25(0.43)	2.47(0.76)	1.43(0.15)	2.09(0.65)

표 12.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갈등 관리 요인에 대한 집단별 행위자들의 사전검사의 변량분석표

변량원(종속변인)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scheffe <sup>1)2)</sup>
자존감	2	.07	.03	.29	.7547	
공격성	2	.50	.25	2.16	.1394	
우울감	2	.21	.10	1.38	.2724	
산만한 의사소통	2	1.71	.85	9.52*	.0010	집단 1<2,3
가족	2	.27	.14	1.67	.2116	
성역할	2	.46	.23	1.63	.2196	
갈등관리	2	.88	.44	6.79*	.0051	집단 2<3

주. 1) 집단1: 행위자 집단(10명), 집단2: 부부 및 행위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5명), 집단3: 부부 집단(7명)

2) ‘>’ 표시는 이웃하는 집단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F(2,27)=5.96,  $p<.01$ ) 요인에서는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의 행위자들과는 <행위자 집단>의 행위자들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3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결과이다.

표 13.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체계기능, 성역할, 갈등관리 요인에 대한 집단별 행위자의 조정된 평균

	행위자집단(1) (10명)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2)(5명)	부부집단(3) (7명)
자존감	2.87	2.79	3.37
공격성	2.32	2.44	1.67
우울	2.01	1.98	1.42
산만한 의사소통	2.52	2.60	1.24
가족체계기능	3.43	3.34	4.34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1.85	1.54	1.49
갈등관리행동	2.25	2.45	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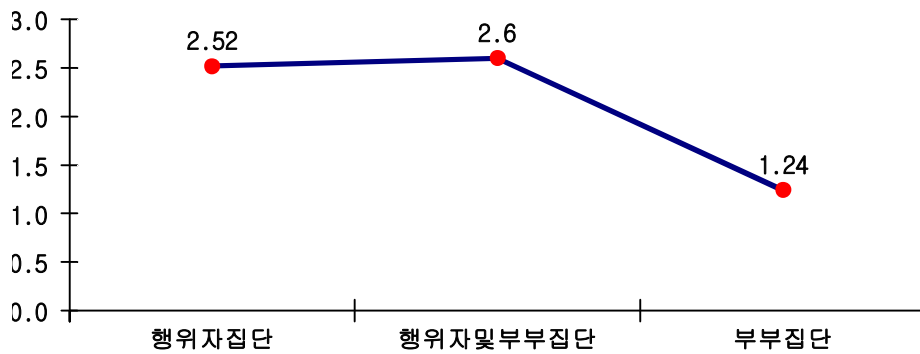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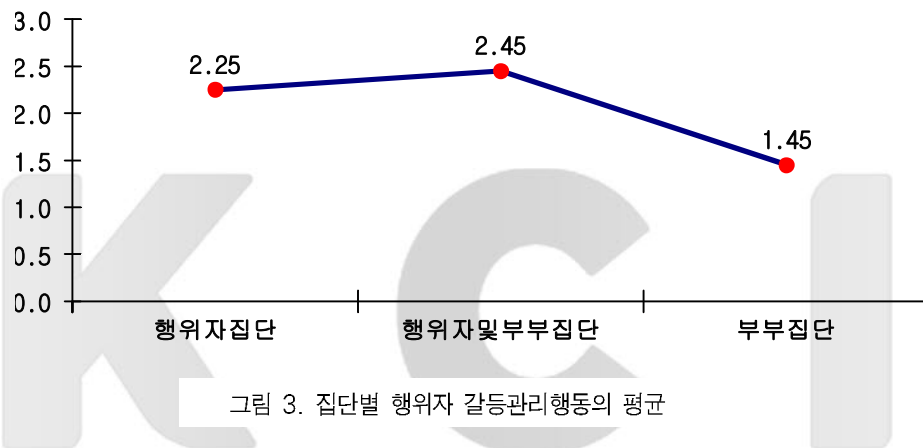


표 14.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갈등 관리요인에 대해 사전검사를 통제된 집단별 행위자에 대한 공변량 분석표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	P	scheffe <sup>12)</sup>
자존감	2	1.50	.75	4.18*	.0296	2<3
공격성	2	2.47	1.24	2.71	.0894	
우울감	2	1.55	.77	4.88*	.0181	3<1,2
산만한 의사소통	2	7.98	3.99	6.90**	.0050	3<1,2
가족체계	2	4.52	2.26	3.84*	.0378	
성역할	2	.60	.30	5.96**	.0089	2,3<1
갈등관리	2	2.87	1.43	5.20*	.0147	3<1,2

주. 1) 집단1: 행위자 집단, 집단2: 부부 및 행위자가 함께 참여한 집단, 집단3: 부부 집단  
 2) '>' 표시는 이웃하는 집단간의 차이가 .05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 논 의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다요인적 원인론에 근거한 7개 변수(자존감, 공격성, 우울, 산만한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가부장적 성역할, 갈등관리행동)를 반영한 이론적 통합 모델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행위자를 돕기 위한 집단 구성방식이 다른 세 개의 집단 간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즉, <부부 집단>이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이나 <행위자 집단>보다 7개 변인에서 유의미한 효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특히, 가정폭력 행동으로 정의된 갈등 관리 행동의 효과의 차이도 보고자 했다.

한편, 이 실험에 사용된 척도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모든 척도들이 단일 요인의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산만한 의사소통 척도에서 한 문항이 제외되었고, 성역할 척도에서도 한 문항이 제외되었다. 그리고 허용도 척도는 신뢰도가

낮아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이 척도들 간 상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자 전원 35명에 대한 프로그램 실시 후, 7개 변인인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산만한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갈등관리행동 전반의 변화가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향상하였는지를 t-test를 통해 살펴 보았다. 결과는 참가자 35명 전체는  $p < .001$  수준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가설 1이 수용되었음을 의미하고 세 집단에 참가한 행위자와 그 배우자 모두에게도 본 프로그램은 효과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가정폭력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정신 역동, 체계 이론, 인지 행동, 여성주의의 통합 모델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행위자들의 자존감, 공격성, 가부장적 성역할, 산만한 의사소통, 부부관계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김경신, 김경란(2002) 연구와 일치한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후에,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자존감, 공격성, 우울감, 산만한 의사소통,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갈등 관리 행동 전반이 프로그램 실시 전에 비하여 향상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각 요인에 대한 집단별 평균과 표준편차 및 조정된 평균을 근거로 하여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행위자 및 각 집단별 차이를 알아보는 공변량(ANC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존감과 우울감, 산만한 의사소통, 갈등 관리 행동, 네 요인에서만 <부부 집단>의 평균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되어 가설2가 부분적으로 충족되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지만 이중 우울감 척도는 사전 검사에서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보다 우울감이 높게 나타나 집단을 배치하는데 있어서 세 집단이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결과가 피험자의 변인과 프로그램의 효과가 상호작용한 결과일수도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또한 공격성과 가족 체계 기능 요인에서는 <부부 집단>이 <행위자 집단>에 비해 더 많이 향상되었고,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 또한 가설 2를 부분적으로 충족시켜 준 결과였다. 여기에서 <부부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두 집단 모두 부부가 함께 참여한 동질적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 된다 특히, 부부간 발생하는 갈등 관리 행동 요인은 <부부 집단>이 다른 두 집단보다도 더 많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향후,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집단 구성방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셋째, 프로그램 실시 후, <부부 집단>의 가해자들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의 가해자들에 비해 프로그램의 효과가 더 많았는지를 알아보기 공변량 분석 결과 자존감, 우울감, 산만한 의사소통, 갈등관리의 요인에서는 <부부 집단>의 가해자들이 <행위자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 가해자들에 비해 프로그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역할 요인에서는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의 행위자들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행위자 집단>의 행위자들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3을 일부분 충족시켜주는 결과이다. 하지만 이중 의사소통 요인에서는 <행위자 집단>보다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 및 <부부 집단>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갈등 관리 요인에서는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보다 <부부 집단>의 갈등관리 점수가 높게 나왔으므로 여기서도 이들 집단들이 서로 동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결과들이 프로그램과 피험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결과와 관련된 직접적인 선행 연구는 없다. 그러나 행위자 부부 집단 또는 가정폭력 부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갈등 관리 행동과 우울, 자존감,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고한 권진숙(1996), 이정연(200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특히, <부부 집단>에 참여한 행위자들의 갈등 관리 행동 요인이 다른 두 집단보다도 더 많이 향상되어 추후 부부가 함께 집단에 참여하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임을 제시했다. 또한 결과에

서 '집단별 갈등관리 행동'과 '산만한 의사소통'의 평균만을 나타내어 <부부집단>이 갈등관리 행동(폭력행동)'을 낮추고 '산만한 의사소통' 방법을 줄여 부부관계 향상을 함으로써 프로그램 효과가 가장 컸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이유는 본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행위자의 '폭력행동 근절'과 '부부관계 향상'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 방식이 서로 다른 세 집단의 진행시기가 각기 다른 것은, 가정폭력 행위자들이 검찰청으로부터 의뢰되면서 교육수료 기간 배정이 각각 다르고 이들은 배정된 시기 내에 교육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부부집단이 맨 마지막 시기에 진행된 것은 서로 다른 집단 구성 방식을 구성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3번의 의뢰 시기마다 사전 면접한 결과 1차 집단에서는 <행위자 집단>을 구성하고 2차 집단부터는 <부부집단> 구성을 시도하였으나 행위자 부부 전원이 참가 의사를 했는 집단은 맨 마지막 의뢰된 3차 집단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부부집단>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본 연구자의 진행방식이 앞의 두 집단을 진행한 반복으로 인한 진행 기술의 변화가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영향을 미쳤으리라 본다.

이런 점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행위자들의 상담 태도이다. 집단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비자발적 동기에 근거한 행위자들과 자발적 동기에 의해 참여한 배우자들의 상담에 대한 태도는 집단 초기에는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 행위자들은 아내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배신감과 상실감으로 다소 저항적이었던 반면, 아내들은 선행 연구에서 상기한 바와 같이 남편의 폭력이 종식되어 다시 원만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집단에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다. 특히, 집단의 초기에 해당하는 3-4회기를 지나 5회로 접어들면서 폭력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영향, 각자의 성장기를 통한 가족 역동 속에 형성된 자신의 모습 탐색, 그 속에서 길러온 자기의 심리 특성을 돌아보고 자신은 물론, 배우자를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자기 탐색과 함께 부부관계 기술 훈련 과제에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행위자들은 친숙해져 갔고 점차 집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는 태도로 변해 갔다. 집단 진행에 있어서는 세 집단 모두 남, 여 협력 진행자들로 이루어졌는데, 주진행자인 본 연구자와 협동진행자간 보여주는 남녀 평등한 인간관계 기술, 상대방에 대한 배려 교육이 이들에게 관계 기술과 화합을 위한 교육 훈련에 긍정적 모델로 작용했다고 소감문에서 공통적으로 밝혔다.

결국 가설3과 함께 행위자들의 긍정적 변화의 시사점은 향후 가정 폭력 가해자의 폭력 근절을 위한 통합 모델 속에서 체계 이론적 요소를 중요한 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것과 동시에 정신역동적 의료 모델과 인지 모델 그리고 여성주의 이론을 접목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할 때,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 적용에 있어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 구성 방식이 부부 모두의 프로그램 참석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성, 가족 체계 기능, 성역할 요인들은 <부부 집단>과 <행위자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한 집단>과는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부부 함께 참여한 공통 속성 때문이라고 보며 향후, 집단별 행위자들의 집단 구성방식을 구성할 때

집단원의 집단 구성방식 즉, 참여 방법의 중복 속성을 배제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가정폭력의 다요인적 원인에 기반한 이론적 통합 모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행위자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서의 다양한 '집단 구성방식'을 통하여 집단 간 프로그램의 효과 차이를 탐색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다요인적 원인에 근거한 이론적 통합 모델을 적용한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제시하고, 행위자들을 돕기 위한 집단구성 방식 양식 유형 설정에 있어서도 보다 근거 있는 시사점을 주었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국내 행위자들의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효과를 지지해주는 선행 연구의 임상적·경험적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행위자들의 다양한 집단 구성방식중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 구성방식에 대한 선행 연구와 가정폭력 발생의 다요인적 원인에 기인한 다차원적 이론의 통합 프로그램의 선행 연구 기반이 부족했다.

둘째, 본 집단 프로그램은 남성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선행 연구 및 이론적 고찰에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행위자 25명 중 여성 행위자 3명에 대한 프로그램의 접근이 취약했다. 향후 프로그램 구성에서는 여성 행위자에 대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집단 구성방식에 따른 효과 비교 연구 결과는 행위자들에게 형사 사법적 절차에 의한 비자발적 집단임을 감안할 때, 연구 결과들이 프로그램의 순수한 효과인

지 형사 사법적 효과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관련법이 시행 초기인 이 시점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국가가 형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법인식이 완전히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습적인 행위자뿐만 아니라 일회적인 행위자도 형사사법 망에 걸리는 경우가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은 형사사법 절차를 거치면서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와는 크게 상관없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태도 변화를 포함하는 폭력 행동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행위자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형사사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효과 측정은 자기보고식의 양적 조사이기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기술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인 변화를 함께 측정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Mathew, D. J. (2000).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허남순, 윤현숙, 조성숙, 구훈모 역. 서울: 나눔의 집
- 공미혜 (1997). 가족주의와 가부장적 테러리즘으로서 아내구타: 부산 [여성의 쉼터]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상담학회, 9, 49-79.
- 공미혜, 박기자 (1998). 폭력 남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일고: Duluth 모델을 중심으로. 여성연구논집, 9, 77-94.
- 광주여성의전화 (1999).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치료 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광

- 주: 광주여성의전화
- 권진숙 (1996). 배우자 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진숙, 전석균 (2001).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4, 36-63.
- 김경신, 김정란 (2002).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효과분석: 아내 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137-158.
- 김경희 (1996). 폭력 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광일 (1987).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 조사. 정신건강연구, 3, 5-8.
- 김광일 (1993). 구타당하는 아내. 정신건강연구, 3, 235-236.
-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부부의사소통 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5, 1-16.
- 김예정 (2001). 남편의 성장기 폭력 경험, 심리적 특성 및 부부간 상호작용이 아내폭력에 미치는 영향: 폭력의 연속성 가정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재엽 (1996). 가정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개입 방안 연구: 임상 치료 프로그램 및 정책적 제언을 중심으로. 동광, 93, 19-35.
- 김정옥·전형미·이현혜 (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합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연구, 20, 21-44.
- 김지영 (2003).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통합모형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선 (1995). 아내구타의 발생과 지속과정에 관한 연구: 매맞는 아내에 대한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노치영, 박성연 (1992). 가족 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 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0(4), 219-230.
- 박미은 (1998).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민수 (2005). 가정폭력 행위자를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 연구, 6(1), 137-154.
- 부산 여성의 전화 (1999).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구성에 관한 연구. 가정폭력연구회.
- 손정영 (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도시 중산층 부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999).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아내 구타자를 중심으로. 부산: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신성자 (1999). 대구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아내학대 발생과 원인파악을 위한 연구. 시정연구, 19, 341-379.
- 신영화 (1999). 학대받는 아내의 능력고취를 위한 집단사회사업실천의 효과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영희 (1998).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태도와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여성부 (2003).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서울: 여성부.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9). 한국가정폭

- 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윤경자, 최규련 (1999). 부부폭력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 학술대회논문*, 45-62.
- 이경순 (2004). 가정폭력 행위자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V. Satir 성장모델 이론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서원 (2003).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성우 (2000). 공격성이 동통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주 (2000). 폭력남편에 대한 한국에서의 개입모델 개발을 위한 시론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40, 157-190.
- 이정숙, 양옥경 (1997).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임상 개입 모형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30, 105-198.
- 이정연 (2003). 부부폭력 개입 프로그램의 과징평과와 추후평가. *한국생활과학회지*, 12(5), 647-658.
-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3), 531-548.
- 전병재 (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 최규련 (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 103-130.
- 최규련·유은희·송숙자·정혜정 (1999).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개발: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32, 159-173.
- 최선령 (2001). 한국 아내학대자의 학대행동 감소를 위한 인지행동모델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 275-311.
- 한홍무 외 (1986).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76, 487-502.
- 허남순 (1995).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 기법에 관한 연구. *비교사회복지*, 2, 277-324.
- Barnett, R. C., & Rivers, C. (1997). Bashing working families. *Dissent, Fall*, 13-15.
- Bartol, C. R. (2002).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ctice Hall.
- Beck, A. T. (1967). *Depression: causes and treatment*.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Bellavial, G., & Murray, S. (2003). Did I do that? self-esteem-related differences in reactions to romantic pareners' moods. *Personal Relationship*, 10(1), 77-95.
- Bograd, M. (1984). Family Systems Approaches to Wife Battering: A Feminist critiqu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y*, 54(4), 558-568.
- Bograd, M., & Mederos, F. (1999). Battering and Couple Therapy: Universal screeing and selection of theatment modalit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5(3), 291-312.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ok, D. R., & Frantz-Cook, A. (1984). Systemic approach to wife battering.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0, 83-94.
- Coleman, K. H. (1980). Conjugal Violence:What ee men report. *Journal of Marital Family*

- Therapy*, 6, 207-213.
- Deschner, J. (1984). *The hitting habit: Anger control for battering couples*. New York: Free Press.
- Deschner, J. P. & McNeil, J. S. (1986). Results of anger control training for battering coupl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111-120.
- Edleson, J. L. & Tolman, R. M. (1992). *Intervening for men who batter: An ecological approach*.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Edleson, J. L. & Tolman, R. M. (1994). Group Intervention Strategies for Men Batter, Detection In Ganley, A. L.(1989). Intergrating Feminist and Social Learning Analyses of Aggression: creating multiple models for intervention with men who batter. In P. L. Caesar and K. Hamberger, ed. *Treating men who batter: theory, practice and programs*. New York: Springer Pub. Co.
- Eddy, M., & Myers, T. (1984). *Helping Men who Batter*. Austin: Texas Department of Human Resources
- Geller, J. A. (1982). Conjoint therapy: Staff training and treatment of the abuser and abused. In M. Roy(Ed.) *The abusive partner*. New York: Springer.
- Gelles, R. J. (1989). Violence and the Family. *A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73-885.
- Gitterman, A. (1996). Life Model Theory and Social Work Treatment. In F. J. Turner ed. *Social Work Treatment: interlocking theoretical approaches(4th ed.)*. New York: Free Press.
- Haj-Yahia, M. M. (2001). The incidence of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some of i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among Arab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5 (7), 885-907.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ic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MacDonald, G., Holmes, J. G., & Murra, S. L. (1997). Self-esteem and relationship identity. *Canadian Psychology*, 38, 45-61.
- McKenry, P. C., Julian. T. W., & Gavazzi, S. M. (1995). Toward A Biopsychosoci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2), 307-320.
- Mullender, A.(1996). *Rethinking Domestic Violence: the Social Work and Probation Response*. London: Routledge.
- Murphy, C. M., & Baxter, V. A. (1997). Motivating Batterers to Change in the treatment Contex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607-618.
- Neidig P. H., & Friedman, D. H. (1984). *Spouse Abuse: a Treatment Program for Couples*. Champaign, Ill.: Research Press Co.
- Neidig, P. H. & Friedman, D. H. & Collins, B. S. (1985). Domestic Conflict Containment: A spouse abuse treatment program. *Social Casework*, 66(4), 195-204.
- Olson, D. H. and Defrain, J. (2003). *Marriage and the Family: Diversity and Strengths. 4th ed.* New York: McGraw-Hill.
- Olson, D. H. Portner, J., & Lavee, Y. (1985). *FACES III*. St. Paul, MN: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smond, M. W., & Martin, P. Y. (1975). Sex and sexim: a comparison of male and female

- sex-role attitud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4), 744-758.
- Parkinson, B. (2001). Anger on the off the road.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3), 507-526.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unsaville, B. J. (1978). Theories in marital violence: Evidence from a study of battered women. *Victimology*, 3(1-2), 11-31.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Californi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aunders, D. (1989). Cognitive and Behavioral Interention with Men Who Batter. In L. Caserfond Han berger, *Family Violence across the Life Span*. Newbury : SAGE publications. 244.
- Saunders, D. G. (1996). Feminist-Cognitive-behavioral and process-psychodynamic treatment for men who batter: Interactions of abuser traits and treatment models. *Violence Victims*, 11(4), 393-414.
- Saunders, D. G. (1998). *Child custody and visitation decisions in domestic violence cases: Legal trends, research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VAWnet: National Resource Center on Domestic Violence. Minneapolis, MN.
- Steinmetz, S. K. (1980). Violence-prone familie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347, 251-265.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A., Bu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640-654.
- Stordeur, R. A., & Stille, R. (1989). *Ending Men's Violence against Their Partners: One Road to Peace*.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 II):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aylor, J. W. (1984). Structured Conjoint Therapy for Spouse Abuse Cases. *Social Casework*, 65, 11-18.
- Tolman, R. & Bennett, L. (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87-118.
- Weidman. (1986). Family Therapy with Violent Couples, *Social Casework*, 67, 211-218.
- Yoshioka, M. R., DiNoia, J., & Ullah, K. (2001). Attitude Toward Marital Violence: an Examination of Four Asian Communities. *Violence against Women*, 7(8), 900-926.

원 고 접 수 일 : 2006. 2. 28

수정원고접수일 : 2006. 4. 22

게 재 결 정 일 : 2006. 8. 11

## Effects of Group Intervention Programs for the Offenders of Family Violence

Mi-Yea Kim

Daeg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ffects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domestic violence offenders. We composed three different types of groups, such as offender individual group, couple group, and mixed group (individual and couple groups). The effects of the three groups were compare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regardless of the groups composition, all the group participants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on 7 variables. Secondly, couple group showed higher increase on self-respect, depression, communication, and conflict control than the other two groups. Couple group also showed better improvement on aggression, family system and sex role than offender group, but no difference in the effects was found with a comparison of the mixed group. Thirdly, offenders of couple group showed better improvement on depression, communication and conflict control than those of the other two groups, and also showed higher scores on self-respect than the mixed group and on sex role than the offender group. On the conflict control behavior, the couple group showed the highest scores of the three groups.

*Key words* : Family violence, suspension of indictment with the qualification of counseling, actual offender, group composition, integrated model